

K제약바이오, 전 세계에 CDMO·신약개발 역량 알린다

(위탁개발생산)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삼성바이오, 압도적 생산능력 확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확대 구축

롯데바이오, 선수주 체계적 준비
셀트리온, K신약 기업 지위 다져
온코네티라퓨틱스, 글로벌 교류 확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대표들이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투자 콘퍼런스인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2025'에 총출동해 K제약·바이오 입지를 다진다.

6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올해 43회를 맞은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는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550여 개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기업과 8000명 이상의 투자자, 제약·바이오 관계자 등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대표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9년 연속으로 JP모건으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고 있다.

특히 존립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올해도 행사 핵심 무대인 '그랜드 볼룸'에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일라이 릴리,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빅파마들과 함께 발표에 참여한다. 주최 측은 전 세계 주요 업체만을 공식 초청하고,



올해에 앞서 지난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2024'에서도 존립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그랜드 볼룸 발표를 맡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초청 기업 가운데 선별된 27개 기업만 그랜드 볼룸 발표 무대에서 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존립 대표는 행사 둘째 날인 14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세계적 수준으로 갖춘 초격차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경쟁력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4월 5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어, 향후 'K-CDMO'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5공장은 1~4공장의 최적 사례를 집약한 18만 리터 규모의 생산공장으로 설계됐다. 5공장 완공 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총 78만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12월 제임스 박 대표이사를 새롭게 영입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4000리터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압도적인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도 확대 구축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명과학 분야 신기술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항체·약물 접합체(ADC) 분야 신규 시설을 설립하고, ADC 관련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등을 활용한 단백질 디자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과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CDMO 후발 주자인 롯데바이오로

직스는 새로 선임된 제임스 박 대표가 출격해 '바이오의약품 및 CDMO 산업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공유한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오는 2030년까지 인천 송도에 3개의 바이오 플랜트를 건설해 총 36만리터 항체 의약품 생산 규모를 갖출 예정이다. 1·2·3공장을 각각 2025년, 2027년, 2030년 준공할 계획으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행사를 통해 오는 2027년부터 가동될 1공장의 선수주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롯데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 '인수'와 '설립'이라는 두 트랙 전략을 펼치며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 현지에도 생산 기지를 마련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22년 12월 미국 뉴욕 동부 시러큐스에 위치한 BM S 공장을 인수해 바이오의약품 CDMO 시설로 전환한 것이다.

셀트리온은 이번 콘퍼런스에서 신약 파이프라인을 전격 공개한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과 서진석 경영사업부 대표이사가 함께 참석해 바이오시밀러 전문 기업에서 신약개발 전문 기업으로의 도약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오는 2029년 첫 제품 상업화를 목표로 ADC 신약 3종, 다중항체 신약 3종 등을 개발하는 데 역량을 쏟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일찍이 바이오시밀러 강자로 자리매김한 셀트리온은 지난

해 '2025년까지 11종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이라는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 또 셀트리온이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신약으로 품목허가를 받아 발매를 시작한 짐펜트라는 초기 시장 진입에 안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셀트리온은 세계 유일의 인플릭시맙 피하주사(SC) 제형 치료제인 '짐펜트라'를 연 매출 1조원 수준의 K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성공시키고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K신약' 기업 지위를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새로운 국산 신약을 내놓은 온코네티라퓨틱스도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 공식 초청받으면서 신약 연구개발 역량을 입증한다.

온코네티라퓨틱스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를 자체 개발해 해외 21개국에 기술수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온코네티라퓨틱스는 합성치사 항암신약 후보물질 '네수파립'을 후속 파이프라인으로 확보했다. 이 물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제3상 허가의약품으로 지정받기도 했다.

온코네티라퓨틱스는 이처럼 앞서 개발한 신약을 상업화한 성공 경험, 자체 자본으로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 등을 강점으로 글로벌 제약사 및 투자자들과 적극 교류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홍산삼 성분으로 피부에 보습·탄력을”

LG생활건강 '더후' 진윙향 안티 링클 매끄러운 피부결·주름개선 등 효능

LG생활건강은 궁중 피부과학 럭셔리 코스메틱 '더후'에서 고보습 안티에이징 제품군인 '진윙향 안티 링클'을 재단장했다고 6일 밝혔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진윙향 안티 링클은 홍산삼의 뿌리, 잎, 줄기 등을 핵심 성분으로 활용해 고보습 기능과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는 효능을 갖췄다. 홍산삼 성분은 에센셜 오일, 펩타이드 등의 성분이 더해져 제품력이 더욱 강화됐다는 것이 LG생활건강 측의 설명이다.

대표 제품인 진윙향 안티 링클 '인리칭 크림'은 LG생활건강이 독자 구축한 레티놀 캡슐레이션 안정화 특허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홍산삼 레티놀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이번 진윙향 안티 링클이 피부 본연의 힘과 매끄러운 피부결을 되찾아주면서 고보습 주름 개선 효능을 경험할 수 있는 '차별적 고객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윙향 안티 링클 제품군은 인리칭 크림을 비롯해 인리칭 토너, 에멀전, 진액 클렌징 폼 등 4종으로 구성됐고 전국 백화점과 더후 공식몰에서 구매 가능하다. /이청하 기자



더후 '진윙향 안티 링클' 인리칭 크림. /LG생활건강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농심라면 재출시

창립 60주년... 소비자에 추억 선물

농심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소비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라면을 재출시한다.

농심은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광고 카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농심라면'을 13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1975년 출시했던 농심라면은 소비자에게도 특별한 추억이 남아있는 제품으로, 특히 1978년 기업 사명(社名)을 바꾸는 계기가 될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농심은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농심라면 외 상반기중 2개 제품 재출시를 검토 중이다.

이번에 출시한 농심라면은 농심 R&D가 보유하고 있던 1975년 출시 당시의 레시피를 기반으로 맛과 품질에서 최근 소비자 입맛에 맞게 업그레이드한 것이



농심라면 /농심

특징이다. 농심은 전통국밥 맛집들이 깊고 깔끔한 국물, 소고기와 쌀밥 전분이 어우러지는 감칠맛에 각종 다진 양념으로 깔끔한 맛을 더하는 특성을 농심라면에 적용했다.

특히 핵심 재료인 소고기와 쌀을 국내산으로 사용해 품질을 높였다. 또한 파, 고추가루, 액젓으로 만든 양념스프를 더해 깔끔한 감칠맛을 더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아모레퍼시픽, 'CES 2025 혁신상' 수상

워너-뷰티 에이아이 기술

아모레퍼시픽은 7일부터(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사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아모레퍼시픽의 '워너-뷰티 에이아이' 기술은 CES 2025 혁신상을 수상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수상으로 6년 연속 CES 혁신상을 받으며 뷰티테크 기술력을 입증하게 됐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워너-뷰티

에이아이'는 음성 챗봇 기반 디지털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고객에게 적합한 메이크업을 제안하고 맞춤형 가상 체험을 제공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사진을 통해 피부 색, 얼굴 비율 등을 분석하며, 메이크업 전문가의 노하우를 학습한 결과라는 것이 아모레퍼시픽 측의 설명이다. 대화도 가능해 편리한 상담이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이와 함께 아모레퍼시픽이 독자 개발한 '인공지능 피부 분석 및 관리 솔루션'은 삼성전자 '마이크로 LED 뷰티미

러'에 탑재돼 선보여진다. 해당 기술은 카메라 기반의 광학적 피부 진단과 디바이스를 활용한 접촉식 피부 진단 기술을 융합한 것이다. 삼성전자 '퍼스트룩' 부스를 방문하는 현장 고객들은 피부 상태 분석, 맞춤형 제품 추천, 스킨케어 방법 제안 등 다양한 미래형 뷰티 경험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행사에서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메이크온 '스킨 라이트 테라피 3S'도 처음 공개하고 오는 3월에는 메이크온 신제품으로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한편, 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도 올해 CES 현장을 방문한다.

/이청하 기자

HK이노엔 '케이캡', 호주·뉴질랜드 진출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2028년까지 100개국 진출 목표

HK이노엔은 최근 호주 제약사인 서든 엑스피와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 완제품을 호주 및 뉴질랜드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서든 엑스피는 ▲케이캡정50mg ▲케이캡정25mg 등 2종에 대한 독점 유통 및 판매 권리를 갖게 됐다.

HK이노엔이 지난 2019년 제30호 국산 신약으로 내놓은 케이캡은 P-CAB 계열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 복용 후 1시간 내에 빠르게 약효가 나타나고 6개월까지 장기 복용 시에도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한 점이 특징이다.

HK이노엔에 따르면, 케이캡은 해외 국가에서도 K신약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글로벌 소화성궤양용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